

등록번호	입법정책담당관-
등록일자	2017. 10. .
결재일자	2017. 10. .
공개구분	공 개

담당자	정책지원 팀 장	입법정책 담당관	사무처장	의 장
이 상 면	김민서	이정숙	정경희	이정숙
협 조	주무관	이정숙		

-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총평	1
II.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3인)	2
② 지정토론(4인)	4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부 록]	
□ 토론회 사진	7
□ 언론보도 현황	8

[2] 지정보론 (4인)

①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충청남도의 경우는 경기도, 제주도, 세종시 다음으로 2002년 이후 순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파악되며, 특히 2006년 이후 25~29세 사이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며 장점이나 이들 계층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여건은 제대로 갖춰놓고 있는지 의문임.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기업가정신 역량지수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수준이며, 25~29세 청년 전입율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인구도 2006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창업성장 잠재역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창업성장 기반은 인프라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요구됨.
- 충남도는 청년창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4차 산업 시대 기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국면에 있으며, 지역차원의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교육, 기반구축, R&D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② 김우영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현재 충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상담,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익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앞으로도 유지·발전시켜가야 할 정책임.
- 하지만 충남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임. 충남에 적정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얼마인지? 산업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공급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수요(인력의 수와 종류)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임.

③ 박준형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 충남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발표기준을 보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산업의 11개 분야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 중 3위
-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TP,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역대학들과 함께 2011년부터 만 39세 이하의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 산업 분야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핸드메이드가 특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트렌드에 맞는 3D 프린팅 제조·교육, 드론 분야의 지속적인 창업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년 평균 69.81%의 높은 유지율을 보임
- 창의인재의 상상력을 융복합 문화콘텐츠로 개발·산업화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신성장 동력 기틀 마련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충남도·각 기초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폐교 등을 파악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단체 1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이후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면 충남 전역으로 확대 예정임

④ 김현철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노사협력팀장)

- 현재 충남도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단순노무와 3D업종에서 주로 근무하며 이들이 도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주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충남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취업준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음. 또한 이들은 사무직 종으로 취업을 원하며 제조나 화학분야를 기피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5개분야 49개 사업을 진행중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차지하는 분야를 국내(도내) 대학생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중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음.
-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과 가치를 수렴하여 추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연구하여 충남도의 청년실업 해결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도내 청년들의 미스매치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적정 외국인 노동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3. 도내 기업인, 청년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도내 기업인, 청년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와 거버넌스의 필요성 대하여 공감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실, 미래성장본부, 일자리정책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10건)	비고
신문보도		4건	
1	충 청 신 문	외국인노동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2	충 남 일 보	충남 외국인력 부족 전국에서 상위권	
3	중 앙 매 일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토론회 개최	
4	신 아 일 보	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서 의정토론회	
인터넷 뉴스		6건	
1	N E W S I S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청년실업 가속화	
2	디 트 뉴 스 2 4	김종필 도의원, “외국인노동자, 청년취업 장애”	
3	M B S	충남도의회,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토론회 개최	
4	아 주 경 제	충남도의회,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토론회 개최	
5	로 컬 투 데 이	충남도의회,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토론회	
6	세 계 타 임 즈	충남도의회,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토론회 개최	

※ 보도내역 별첨

□ 신문보도(4전)

충청신문

2017년 10월 18일 (수)

정치 05면

외국인 노동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충남도의회 토론회... 고용조사·사회통합 등 지방정부 차원 대책 수립해야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연구원에서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필 의원(서산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최근 100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김우영 공주대 교수, 박준형 도 전략사업팀장, 김현철 도 노사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과 신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지난 2012년 111만4000명에서 지난해 142만5000명으로 31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13만2000명으로, 전

국 대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제조업 집적지인 충남 서북부권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실업가속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 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늘다 보니 단순 노동이나 생산업종 등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채용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근로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차원의 통계정비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외국인간 사회갑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정임 기자 j2516@dshyoc.net

226 X 105 mm

충남 외국인력 부족 전국에서 상위권

‘청년 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 토론회’ 개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이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17일 충남연구원에서 개최한 ‘청년 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종필 의원(서산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 토론회는 최근 100만 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위원,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과 김우영 공주대 교수, 박준

형 도 전략사업팀장, 김현철 도 노사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과 신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생산가능 인구)은 2012년 111만4000명에서 지난해 142만5000명으로 31만1000 명이 증가했다.

이 중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3만2000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제조업 집적지인 충남 서북부권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실업 가속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 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늘다 보니 단순 노동이나 생산업종 등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 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채용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근로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통계 정비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지역단위의 외국인 고용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은 “내·외국인간 사회 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외국인 고용 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명균 기자 woomk22@daum.net

178 X 119 mm

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서 의정토론회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주제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17일 충남연구원에서 김종필 의원(서산2)의 요청으로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김우영 공주대 교수, 박준형 도 전략사업팀장, 김현철 도 노사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천식 교수 등은 발제에서 “국내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2012

년 111만4000명에서 지난해 142만 5000명으로 31만1000명이 증가했다”며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13만2000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제조업 집적지인 충남 서북부권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실업 가속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 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늘다 보니 단순 노동이나 생산업종 등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숙련도는 대체

로 낮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채용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근로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차원의 통계정비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외국인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179 X 122 mm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토론회 개최

김종필 의원 외국인 노동자 우리사회 미치는 영향 분석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연구원에서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필 의원(서산2·사천)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최근 100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김우영 공주대 교수, 박준형 도 전략사업팀장, 김현철 도 노사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과 신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2012년 111만4000명에서 지난해 142만5000명으로 31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지난

해 기준 13만2000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제조업 집적지인 충남 서북부권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실업가 속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 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늘다 보니 단순 노동이나 생산업종 등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채용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근로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차원의 통계정보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외국인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천수 기자

□ 인터넷 뉴스(6전)

외국인 노동자 급증이 청년실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주관으로 17일 충남연구원에서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의정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종필 의원(서산2)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100만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좌장을,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김우영 공주대 교수, 박준형 도 전략사업팀장, 김현철 도 노사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과 신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2012년 111만 4000명에서 지난해 142만 5000명으로 31만 1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13만 2000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제조업 집적지인 충남 서북부권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실업 가속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 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늘다 보니 단순 노동이나 생산업종 등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채용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근로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차원의 통계정비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외국인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